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공동대응

제주도-도의회, 어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제주특별법 개정 등 추진 합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은 선도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공동협력기로 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19일 도청 담랴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제주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협력 ▷공공의료체계 강화,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 개발 추진, 신속한 백신접종 위한 대비 노력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 협력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및 제도개선 공동 노력 등이다.

우선 도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복리 증진과

선도적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에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 개발 추진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 대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도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특별자치지는 그 특별함의 색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

다"며 "도정과 도의회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하는 공동협력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새로운 제주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3대 기금의 상환유예 및 기준 완화 등 도민의 위기 극복 방안을 도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방역에서 경제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의회와 도가 따로 없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최상의 방법"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조치를 하고 의회도 앞으로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의장이 19일 도청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공동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4·3 배보상 연구용역 돌입

정부, 올 6월 말까지 수행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 절차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이번 연구용역에는 예산 3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용역 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이날 연구기관 확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에게 제출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주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산정 기준 도출을 위한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와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구분된다. 사례조사의 경우 국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의 소송을 통한 배보상 사례 분석, 지자체 지원 현황 등을 살핀다.

해외 사례 조사에서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해 배보상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독일,

대만) 사례가 집중 연구 대상이다.

입법을 위한 제언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경제적 배보상의 성격 및 용어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도출 및 구체적 산정 기준, 지급방식, 지급대상, 비용추계, 예산확보 및 반영 방안 ▷유족 설득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방안 ▷입법을 위한 구체적 조문(안) 제시 등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을 토대로 산정된 배보상 금액을 오는 8월쯤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12월 당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4·3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법에 배보상 방안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형 재난지원금 또 선별 지원

도, 설 명절 전 4차 지원금
 이달말부터 신청 접수·심사
 소상공인 등에 330억 투입
 예술인 3차 지원기준 보완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선별 지급 추진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말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의 3차 지원금을 보다 두텁게 하는 추가 지원과 함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방역으로 정부 대책 기준 외에 여행·관광업 등 별도의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주를 이룬다.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도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부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제주형 2단계 플러스 알파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

업제한 업종 수준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 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에게 지급되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약 330억원(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된다. 도는 지난해 11월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보완해 기 수혜자에게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전달받은 200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각지대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 7개 분야를 선정, 지원에 나섰지만 신청 저조 및 기준 부적합 등으로 계획(133억원) 대비 지급실적(50여억원)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분야는 당초 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급액은 15억4200만원(신청금액 16억5400만원), 문화예술계는 당초 10억원 지원 계획서 4억여원(6억여원)에 그쳤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코로나 특별경영자금 상환 1년 연장 매출절벽 농인 5430여개 업체 부담 덜어줄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자금별 용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35억원을 보전한데 이어, 올해 상환 기간 도래에 맞춰 용자 기간을 1년 간 더 연장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용자추천서 발급을 생략하고 있는 만큼 대출연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에 문의해 보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이후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실행하면 2.1%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로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제주도는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16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난해 2-5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5437개 업체에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67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제주
 과잉 관광으로 망가져가는
 제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세련된
 공항 도시의 옷을 입은
 제주가 아니라,
 제주의 산과 들이
 마을과 사람이
 생명과 바다가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있길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의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제2공항을 막아주세요.

제2공항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반대한다”고 답해주세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제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전국 29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9년 11월 출범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제주다움을 지켜갑니다"

제주를 지키는 “반대”